



작은 정성이 큰 사랑으로 <하>

유경남 (용인시 기흥읍)

1995년 6월 무더운 여름날 전 세계가 경악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회원들은 고대로 서울교육대학 운동장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고귀한 가족의 생명을 빼앗긴 사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며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음료수를 권유하면서 그들과 한 달간을 함께 지낸 후 철수했다.

이때의 봉사활동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실감했으며, 참된 인유바라밀과 보시바라밀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큰스님이 평소 하신 법문들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왔으며, 나와 남이 풀이 아닌 도리가 분명하게 느껴졌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40여년의 교직 생활을 하던 남편이 명예롭게 퇴직을 했다. 남편은 한 평생 외딴길 걷어온 교육자로서의

소에 도착한다. 마음이 즐겁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에서는 90년대 초에 몇몇 서울대병원 교직원들이 모여서 불우한 환자들을 돕기 위한 합춘후원회를 설립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의료복지 환경은 매우 열악했었는데, 환자들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비롯해서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었다.

그런 환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됐다. 후원회는 해가 거듭될 수록 성장해서 10주년 기념 행사 때는 작은 불방울이 모여 큰 호수가 되었다고 모두가 감격해 마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 합춘후원회에서 불우한 자들 자신 바자회가 매년 개최되는데,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사랑나누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림 · 김홍인

자원봉사란 아름다운 뜻을 나뉘어요

원력이 크고 넓은 것은 깨달음의 나아감이라

큰 가르침을 받드는 것은 둘 중 하나를 받들이요

일마다 정성을 다함이 하늘공양과 같아라

사명을 다하신 분이다. 나는 그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주 집을 비우고 다녔지만 아이들은 모두 순조롭게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잘 살고 있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며 산다.

정년퇴직을 한 남편을 위해서 서초동 집을 비워놓고 지금은 조용하고 쾌적한 용인시로 이사할 하여 살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 봉사를 하는 날은 아침 일찍 나서서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며 가는데, 적어도 2시간 남게 걸린다.

그래도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봉사장

우리 철봉회 회원들도 매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여 많은 사랑을 나눠 주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는 매년 연말이면 1년간 여러 팀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평가회를 한다. 20주년이 되는 연말 평가회는 평년보다 다양하게 개최되어 글짓기도 하고 포상도 했다. 그날의 주제는 자원봉사의 첫자를 따서 4행시를 짓는 것이었는데, 나도 입상을 하게 됐다.

그 때 내가 지은 시가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란 아름다운 뜻을 나뉘어요
원력이 크고 넓은 것은 깨달음의 나아감

이라
큰 가르침을 받드는 것은 둘 중 하나를 받들이요
일마다 정성을 다함이 하늘공양과 같아라.

며칠 전, 나는 산사에 가서 깊어가는 가을의 경치에 흠뻑 젖어 큰스님도 친견하고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 내내 큰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맴돌고 있었다.

“진정한 봉사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봉사인지 몰고 아주 작은 것부터 헌신적으로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렇다. 나는 분명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도 했다.

어쩌면 내가 20여년 간 해온 일은 참된 봉사가 아닐지 모르겠다. 문득 한없이 부끄럽고 그렇게 내 자신이 작아 보일 수가 없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솔선된 사랑과 희생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이웃 더 나아가서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의미가 있다. 작은 불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더 나아가 크고 넓은 바다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처럼 한분 한분의 작은 사랑이 모여서 더욱 큰 사랑을 이루고 이 사랑이 꼭 채워질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동체대비(同體大悲)가 공허한 가르침이 아님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자비행을 실천해 보아야 한다.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일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대로가 불국토로 환원될 것이라 믿는다.

20여 년간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사를 드리며 오랜 세월 나의 봉사활동을 지켜보며 끊임없이 격려해주신 남편과 자식들에게도 감사하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나무 마하번야바라밀. (끝)

킬레이 수행일기 <상>

임제선원과 처음 인연이 닿은 때가 8년 전 이때쯤 되는 여름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청 맞은편 주막가에 위치해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전화통화로 알고 길을 나섰지만, 막상 근처에 도착해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헤매다가 결국 법현(法玄) 스님과 두어 차례 통화를 더 한 후에야 땀 흘리는 수고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임제선원을 찾아가는 길이 지금 공부해 가는 과정과 참으로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내고는 이 산, 저 절 찾아다니며 큰스님 친견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신심(信心)이 부족한 탓으로 순간순간 닦쳐오는 인연에 흔들려서 풀땀같은 참선공부를 지속해 가지 못함을 스스로 부끄러워 했을 뿐입니다. 공부 길로 바로 들지 못하고 길가에서 맴돌거나 엉뚱한 곳에서 헤매기 가일부였습니니다.

이제 천만다행으로 임제선원에 발걸음 한 이래로 종성(宗成) 스님을 모



김장호
하나은행 차장

님께 사연을 말씀드리니 책 말씀은 안하시고 “참 잘 왔다”고 말씀하시고는 참선공부의 요긴함을 간략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두가 있느냐고 물으시니 길래 이전부터 품고 있던 화두가 있다고 말씀드리니 “화두가 항상 성성적(惺惺寂寂)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쾌함이 해주시는 ‘성성적적(惺惺寂寂)’이란

‘임제록 연의’ 구하기위해 종성 스님 만나 ‘화두는 성성적적해야’ 가르침 깊이 새겨

시고 법현 스님의 간절하신 가르침을 받들어 정진하고 있습니다. 세세생생 감감했던 무명을 뒤흔켜 생사의 모순이 없는 본래자기로 돌아가고자 본래 빈 마음자리에 화두를 들고 참구하며 분발하고 있습니다.

‘우연도 당연’ 이랄까, 임제선원을 공부처로 삼게 되기까지는 엉뚱한 연유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신문에서 백양사 서옹(西翁) 스님께서 <임제록 연의>를 출판하셨다는 글을 보고 구해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들어 백양사로 무작정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서옹 스님께서 전화를 직접 받으셨는데 저의 사정을 들으시고는 “서울 임제선원에 내 제자가 있으니 거기 가면 구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며 전화번호까지 알려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종성 스님께서 서옹 스님의 법제자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제선원과 인연이 닿게 되었는데, 처음 선원에 들어서서 스님께 삼배를 올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았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참으로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스

이 한 말씀, “밤 하늘의 별과 같이 고요하고 고요하며 밝고 밝은 것을 성성적적(惺惺寂寂)이라고 하니 화두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이 말씀, 어찌 놓치겠습니까. 책 한권을 구하기 위해 임제선원을 찾았던 그 때까지만 공부의 끈을 이어오게 된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하게 될 줄을 어떻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천만다행이고 다행일 뿐입니다.

종성 스님의 법문은 우리들 모두 한 두 번쯤 들었음직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 법문들이 큰스님을 통해 새롭게 살아나 듣는 이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삼계유일심(三戒唯一心) 심외무법(心外無法)’을 주제로 한 법문에서 심(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스님께서 공부하실 때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출가 전 스님께서서는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이라 하셨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은가?” 흔히 쉬운 말로 마음 마음을 하지만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 않음을 알게 해서 참선 공부길로 자연스럽게 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교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위(4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ushy@buddhapia.com

공개 강의

간(肝)청소비법 대장 청소비법 220V 정락 소동법

간(肝)청소 방법과 재료 100% 전수함
소동법 당일 실기위주 100% 전수함

일시 9월 12일(일요일) 12時 맛보기
무료강의 1時 본강의

장소 수서역 4번출구 E-마트 뒤
목화오피스텔 504호
心川 자연건강센터

017-750-9900 [예약필수]

중국 자격증 및 학위 취득 연수

연수목적

소정의 연수 과정을 마치면 침구제(3년), 중의제(5년)결업과 침구사, 중의사 자격증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 생업의 소득증대와 해외이민시 병, 의원의 설립과 유학시(면입), 포교사파송시(의료포교)
W.T.O 개방에 대비를 위한 연수입니다.

연수학교

중국 요녕성 중의연구원 (심양시)

연수기간

2004년 10월 5일 ~ 10월 9일 (4박 5일)

연수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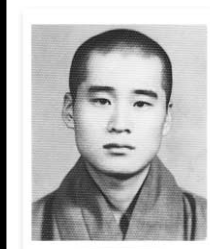
중의침구학, 중국특수침법, 비만침법, 미용침법, 피부관리침법, 침구진단, 경락경혈, 단혈치료

연수 설명회 및 신청

2004년 9월 12일(일) 오후 2시 ~ 5시

중국 연수학 전문 중국 문화원
02)456-4248 / 016-221-4516
후원 : [주]관광포럼여행사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절제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 의 지중환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호한 치료법**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 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이알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있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셨지만 편안 한 마음으로 꼭 한번 매원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서울약령시장(경동시장) 내 효성약초 사암침연구소
TEL. 02)965-2724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초청안대문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아껴주신 은혜를 어찌 말과 글로써 다 표현 하오리까!
염려하여주신 덕분에 현재 단양 광덕사는 대웅보전 불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0월 2일(토)에는 대웅보전 불사현장에서 여러 큰스님들을 모시고 **‘수륙 천도대법회’**와 **‘경로잔치’**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날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더 없는 광영이겠습니다.



일시 : 불기 2548년 10월 2일(토) 음. 8. 19

- 수륙천도대법회 : 오전 11시
- 경로잔치 : 오후 2시

장소 : 단양 광덕사 대웅보전 불사 현장

회주 혜인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도락산 광덕사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산 30-1
전화: 043)421-4700~1 연락처: 011-268-0006